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한유진(Eugene Han)¹⁾

ABSTRACT

The 299(162 female and 137 male) participants in this study listened to six stories designed to elicit prosocial or self-protective rules. The Aggression Scale is composed of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and expression of anger.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scal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mponents. Results showed girls used more appropriat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for managing negative emotions and more prosocial motives than boys. In the regression analysis emotional display rules and gender positive strategies accounted for 6%, 9%, and 5% of the variance in verb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expression of anger. Children with prosocial motiv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many strategies showed lower levels of egocentricity and peer rejection.

Key Words :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정서표출 규칙(Emotional Display Rules),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es), 공격성(aggression), 또래관계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 서론

정서기능과 맥락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관점(Barett & Campos, 1987)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정서표현의 조절에 관심을 갖는다.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Thompson, 1994)이므로, 정서조절 능력은 정서경험을 주어

진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Saarni, 1984;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으로 정의된다.

유아기와 비교하여 학령기 아동들은 사고와 정서에 대한 자기 보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고, 정서조절을 위한 사회화 압력이 증가한다(Saarni, 1989). 따라서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 대인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 이 논문은 명지대학교 2004년도 신입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gene H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ersity,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 : yjhan@mju.ac.kr

정서표현을 억제하고(Fuchs & Thelen, 1988; Zaman & Garber, 1996), 정서적 역할 수용과 정서표출 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Gnepp & Hess, 1986; 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Saarni, 1979, 1984). 정서 조절 능력은 구분되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정서조절의 발달적 추이를 강조하여 유아기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정서조절에 능력에 주된 관심을 두어 왔다. 따라서 정서조절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정서적,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보다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은 정서의 표현을 조절할 것인지, 만약 조절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동의 결정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정서조절 능력에 통합된다. 어린시기부터 아동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문화규범을 학습한다(Cole, 1986; Gnepp & Hess, 1986, Saarni, 1984). 예를 들어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의 정서표현에 대한 문화적으로 승인된 정서표출 규칙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동은 발달함에 따라,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도 증가하며(Saarni, 1984), 학령기 아동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Fuchs & Thelen, 1988; Zeman & Shipman, 1998). 특히,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은 1~5학년 사이에 증가하며, 그 이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Gnepp & Hess, 1986)는 연구결과는 후기 아동기의 정서표출 발달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회화의 영향으로 어린 유아는 무의식적으로 정서표출 규칙을 사용하나 학령기 아동은 의도적으로 정서를 조절한다(Gross & Harris, 1988).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정서조절의 목표를 강조한 일련의 선행연구(한유진·유안진, 1998; Sarni, 1989; Underwood 등, 1992)들은 정서 조절의 동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아동의 목표(goals)와 관련하여, Sarni (1979)는 문화규범, 부정적 결과 회피, 타인의 복지보호 및 자신의 자존감 보호의 네 가지 동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Gnepp & Hess, 1986; Saarni, 1989)들은 관계의 보호나 유지를 위한 친사회적 동기와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기보호적 동기에 관심을 두었다. 2, 5, 10학년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를 조사한 연구(Gnepp & Hess, 1986)는 자기보호적 이유보다는 친사회적 이유에서, 혼자 있을 때 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동이 정서표현을 더 많이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기에는 공감능력과 조망 수용능력이 증가(Claes, 1992; Roberts & Strayer, 1996)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상대방의 입장과 정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되는 친사회적 동기가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조절의 또 다른 부분은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것으로, 아동은 언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가도 아울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서조절 전략은 일단 아동이 정서를 경험한 직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한 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결정된다(이지선·유안진, 1999).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의 구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아동은 다양한 정서조절 방법을 사용하는데, 표정을 바꾸는 표정조절, 언어적 발언을 조절하는 언어 조절, 자신의 공격성 수준을 조절하는 공격성 조절, 대안적

인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조절 전략들로 구분할 수 있다(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1998). 한편, Garber와 그의 동료들(Garber, Braafladt, & Zeman, 1991)은 우울장애로 진단된 초기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문제중심전략과 적극적 전환 전략을 덜 사용했고, 회피적, 수동적,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표현을 조절하기 위해서 표정과 언어적 발언을 조절하는 적극적 전략과 행동수준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전략, 그리고 대안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대안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 전략, 회피억제 전략, 대안추구 전략으로 정서조절 전략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은 정서조절능력 연구에서 주로 탐색되어 온 변수이다.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정서조절을 많이 하고, 정서표현의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예측한다는 연구(임희수 · 박성연, 2002; Zeman & Shipman, 1997)가 있는 반면, 여아들은 분노와 실망을 더 잘 감춘다는 연구(Cole, 1986; Cole, Zahn-Waxle, Smith, 1994)가 있어 정서표출 규칙의 성차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정서조절 동기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는 남아가 높았고, 여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동기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지선 · 유안진, 1998)와 자기보호적인 동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으나, 친사회적 동기는 여아가 높다고 밝힌 연구(한유진, 2004; Zeman & Shipman, 1998)가 있다. 정서조절 전략의 성차를 탐색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정서조절 전략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Zeman & Garber, 1996)와 슬픔의 조절상황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이지선 · 유안진, 1998)한다

는 연구가 있다. 성별이 정서조절 능력에서 주로 탐색되어 온 변수이나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정서조절 능력을 세분화하여 아동의 성에 따른 경향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오랜 이론적 흥미에도 불구하고 정서 조절능력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아동기는 이후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공격문제가 배양되고, 또래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사회적 기능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인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서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Coie & Dodge, 1998)이며, 이후 청소년기의 비행, 학업성취의 어려움, 약물 중독 등 부정적인 적응 결과를 예측한다(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5;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그러나 최근에서야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격적인 아동은 그들의 또래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보고(Bohnert, Crnic, & Lim, 2003; Hubbard, 2001; Underwood, 1997)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들이 외적인 정서표현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특정 정서의 원인을 인식하는데 덜 민감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과거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박혜경 · 박성연, 2002; Cole 등, 1994; Underwood 등, 1992)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들은 정서표출 규칙

에 대한 지식과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격적인 아동의 정서 능력의 특성만을 밝히고 있을 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정서조절 능력 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정서조절 능력을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으로 구분하여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공격성은 여러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능력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또 다른 연구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정서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Denham, 1998). 아동기에는 유아기보다 더 많은 또래와 접촉하고, 보다 광범위한 또래관계망을 갖게 된다(Parker & Gottman, 1989). 또래와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상호작용은 또래관계가 확고해지는 학령기와 이후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예측인자이다(Denham & Holt, 1993; Parker & Asher, 1987; Robins & Rutter, 1990).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유지할 수 있고,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한다. 대조적으로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격적인 아동은 학교 적응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비행,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Hapasalo & Tremblay, 1994; Kochenderfer & Ladd, 1996).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갖는 아동들은 언제,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선택을 한다. 정서조절의 실패로,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며 (Bridges & Grolnick, 1994; Cole, Michel, & Teti,

1994), 정서를 잘 조절하는 기술은 또래관계의 성공에 도움(Underwood, 1997)이 된다.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고, 또래에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Hubbard & Coie, 199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 변인인 정서표출 규칙 사용, 동기 및 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는 또래관계의 질적인 차원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Arsenio 등, 2000; 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는 아동의 정서능력에 따른 또래 수용정도에 주된 관심을 두어왔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질과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발생하는 능력이 부족(Crick & Dodge, 1994)하고, 친사회적 정서조절 동기를 가진 아동이 문제행동을 더 적게 나타냈다는 선행연구(한유진, 2004)는 정서조절 전략 및 동기와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이나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과 또래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 연구(Dearing, Hubbard, Ramsden, Parker, Relyea & Smithmyer, 2002)는 분노의 조절이 사회적 선호와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만 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정서

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제까지 정서조절 능력을 정서표출 규칙 사용,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아동기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적 능력(정서표출 규칙,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적 능력(정서표출 규칙,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은 어떻게 관계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정서표출 규칙,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정서표출 규칙,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 후반인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였는데,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이후의 적응에 중요한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변화가 수반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3개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동 299명이며, 연구대상의 성별구성은 남아 137명(46%), 여아 162명(5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0.5세였다.

2. 연구도구

1)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Gnepp & Hess, 1986; 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7)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정서표현을 조절하기에 적절한 갈등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 중 비밀폭로, 생일선물, 선물 가로채기 등의 3가지 이야기는 부적 정서를, 수학시험, 달리기 선수, 봉사활동 등 3가지 이야기는 정적 정서를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대상 아동에게 각 상황을 동일한 어조로 읽어준 후, 이야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상 아동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 연구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너라면 그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겠니, 아니면 감추겠니?”라고 물어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여부를 알아보았다. 정서를 조절하는 경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 정서 조절시 사용한 전략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할 거니?”라는 질문을 통해 정서조절의 동기를 파악하였다.

각 상황에서 정서표출규칙을 사용하여 정서조절을 하는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주었다. 따라서 정서조절 점수는 한 아동 당 0~6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전략의 수는 아동이 사용한 모든

〈표 1〉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의 정의와 응답의 예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	정 의	응답의 예	
정서조절 동기	친사회적	관계의 보호나 유지를 위한 동기	할머니가 실망하실까봐 할머니가 슬플까봐
	자기보호적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버릇없다고 야단맞을까봐
정서조절 전략	적극적전략	정서표현을 조절하기 위해 언어적 발언을 조절, 얼굴표정을 바꾸는 것	화나지 않은 것처럼 얼굴 표정을 짓는다.
	회피억제전략	행동을 억제하고 그 즉시의 반응을 회피하는 것	가만히 있다. 모른척 한다. 집에 간다.
	대안추구전략	정서 조절을 방법으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TV보기

전략의 총합을 의미하고, 정서조절 전략의 종류는 적극적 전략, 회피억제 전략, 대안추구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범주로도 분류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무의미한 전략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동의 정서 조절 동기는 친사회적 동기와 자기보호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반응원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친사회적 동기에 1점, 자기보호적 동기에 0점을 주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사회적 동기로 정서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훈련을 마친 평정자 2인에게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주고 각자 분류하도록 하였다. 두 평정자는 96%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불일치된 내용은 두 평정자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범주가 불분명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Buss & Perry, 1992; Orpinas & Frankoski, 2001)의 공격성 척도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언어적 공격(6문항), 대인 공격행동(7문항),

대물 공격행동(3문항), 분노 표출(4문항)의 4개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간 제시된 공격 행동의 빈도를 0번(0점)부터 6번 혹은 그 이상(6점)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으로 높은 수준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언어적 공격이 .81, 대인 공격행동이 .82, 대물 공격행동이 .77, 분노 표출이 .67이다.

3)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에서 또래 관계 이외의 성인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맞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요인에 친밀감(3문항), 정서적지지(7문항), 관계 만족(5문항)의 3개 하위영역(15문항)을 포함하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무시(6문항), 갈등(5문항), 일방적 주도(4문항)의 3개 하위영역(1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은 5점 리커트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질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긍정적 또래관계 질은 .88(친밀감 .68, 정서적지지 .83, 관계만족 .76)이며, 부정적 또래관계 질은 .86(무시 .72, 갈등 .84, 일방적 주도 .66)이었다.

3. 연구절차

초등학교 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와 행복,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접한 내용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6개의 이야기를 최종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3개교 5학년 9학급 교실에서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을 조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312부 중 부실 기재된 것 9부를 제외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의 측정은 6명의 아동학 전공 보조연구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보조연구자는 면접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별도의 훈련을 받았다. 개별 면접은 학교 내 조용한 공간(도서관, 상담실 등)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아동과 간단한 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후, 이야기 속 주인공을 대상 아동이라고 가정하고 6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제시 순서의 효과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하였으며, 아동이 자유롭게 언어적 반응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

때 아동의 모든 반응은 응답지에 보조연구자가 기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적 정서의 정서표출 규칙 사용 평균 점수는 남아가 2.28, 여아가 2.19이며, 부적 정서는 남아가 1.63, 여아가 1.23으로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조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친사회적 동기는 남아가 평균 1.00, 여아가 1.27이었다.

정서조절 시 사용한 적절한 전략의 수는 남아가 2.12 여아가 2.35이었다. 정서조절 전략을 전략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상 아동들은 적극적 전략, 회피억제전략, 대안추구 전략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 또래관계의 평균점수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친밀감에서 남아가 8.25, 여아가 8.79, 관계만족에서 남아가 19.13, 여아가 18.60, 정서지지는 남아가 19.97, 여아가 20.28이었다. 부정적 또래관계는 무시에서 남아가 19.97, 여아가 20.28, 갈등에서 남아가 17.36, 여아가 17.60, 일방주도는 남아가 9.82, 여아가 10.38이었다. 또래관계의 질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격성은 언어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9.24, 여아가 7.14, 대인공격 행동에서 남아가 8.86, 여아가 5.28, 대물공격 행동에서 남아가 2.79, 여아가 2.06으로 여아보다 남아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출 공격성은 남아가 4.46, 여아가 6.23으로 여아의

〈표 2〉 아동의 정서표출규칙, 정서조절 동기, 전략 수와 종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관한 기술 통계치

변 수	하위영역	성 별	평 균	표준 편차
정서표출 규칙 사용	정적정서	남(137)	2.28	3.16
		여(162)	2.19	2.34
	부적정서	남(137)	1.63	2.98
		여(162)	1.23	2.71
정서조절 동기	친사회적 동기	남(137)	1.00	.91
		여(162)	1.27	.92
전략 수	전략 수	남(137)	2.12	1.22
		여(162)	2.35	1.07
전략종류	적극적 전략	남(137)	1.16	.95
		여(162)	1.44	.91
	회피억제전략	남(137)	.74	.96
		여(162)	.65	.79
	대안추구 전략	남(137)	.22	.49
		여(162)	.26	.54
긍정적 또래관계 질	친 밀 감	남(137)	8.25	2.96
		여(162)	8.79	2.60
	관계만족	남(137)	19.13	4.31
		여(162)	18.60	3.80
정서지지	남(137)	22.60	5.65	
	여(162)	23.36	5.06	
부정적 또래관계 질	무 시	남(137)	19.97	6.19
		여(162)	20.28	6.53
	갈 등	남(137)	17.36	5.73
		여(162)	17.60	5.80
일방주도	남(137)	9.82	3.05	
	여(162)	10.38	4.52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남(137)	9.24	7.57
		여(162)	7.14	6.43
	대인 공격행동	남(137)	8.86	8.31
		여(162)	5.28	6.18
	대물 공격행동	남(137)	2.79	3.94
		여(162)	2.06	3.44
분노표출 공격성	남(137)	4.46	4.96	
	여(162)	6.23	5.19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변 수	하위범주	남(137) M(SD)	여(162) M(SD)	t
정서조절 능력	친사회적 동기	1.00(.907)	1.27(.92)	-2.569*
	전략 수	2.13(1.22)	2.35(1.07)	-1.630
	적극적전략	1.16(.95)	1.44(.91)	-2.587*
	회피억제전략	.74(.96)	.65(.79)	.936
공격성	대안추구	.218(.49)	.26(.54)	-.732
	언어적공격성	9.24(7.56)	7.14(6.43)	2.604**
	대인공격행동	8.86(8.31)	5.28(6.18)	4.239***
	대물공격행동	2.79(3.94)	2.06(3.44)	1.705
	분노표출공격성	4.46(4.96)	6.23(5.20)	-3.040**

* $p<.05$ ** $p<.01$ *** $p<.001$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은 정적 또는 부적정서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정서를 조절할 때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t=-2.569, p<.05$), 적극적 전략을 유의미하게 더 사용하였다($t=-2.587, p<.05$).

성별에 따라 공격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언어적 공격성($t=2.604, p<.01$), 대인 공격행동($t=4.239, p<.001$)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출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3.040, p<.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공격성의 표현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질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이전에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표 4>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 간의 상관관계(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서표출 규칙 사용	1.정서표출 규칙	1															
	2.친밀감	-.042	1														
긍정적 또래관계 질	3.관계만족	-.029	.409**	1													
	4.정서지지	-.048	.503**	.617**	1												
부정적 또래관계 질	5.무시	.044	.113*	.071	.152**	1											
	6.갈등	.114	.022	.021	.061	.757**	1										
	7.일방주도	.116*	.020	-.007	-.005	.474**	.551**	1									
	8.친사회적 동기	.097	.044	.083	.100	.217**	.340**	.168**	1								
	9.적극적 전략	-.027	.077	.063	.112	.048	.041	.104	.303**	1							
	10.회피억제 전략	.099	.072	.113	.091	.127*	.058	.032	.029	-.216**	1						
정서조절 전략	11.대안추구	.101	.017	-.052	-.041	.136*	.158**	.084	.207**	-.141*	-.063	1					
	12.전략수	.104	.123*	.115*	.139*	.189**	.144*	.142*	.425**	.576**	.550**	.282**	1				
공격성	13.언어적 공격성	-.163**	.043	-.031	-.097*	-.186**	-.265**	-.195**	-.077	-.141*	-.021	-.002	-.132*	1			
	14.대인 공격행동	-.116*	.006	-.046	-.122*	-.252**	-.314**	-.272**	-.112	-.156**	-.030	-.032	-.164**	.743**	1		
	15.대물 공격행동	-.107	.066	.041	-.022	-.151**	-.229**	-.148**	-.052	-.040	-.050	-.043	-.090	.593**	.559**	1	
	16.분노표출 공격성	-.153**	.099*	-.031	-.047	-.179**	-.258**	-.145**	-.084	-.39	-.055	-.032	-.089	.641**	.545**	.622**	1

* $p < .05$ ** $p < .01$ *** $p < .001$

정서적 능력,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의 하위영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공격성에서 언어적 공격성의 경우 정서표출 규칙($r = -.163, p < .01$), 전략수($r = -.132, p < .05$), 적극적 전략($r = -.141, p < .05$)과 대인공격행동은 정서표출 규칙($r = -.116, p < .05$), 전략수($r = -.164, p < .01$), 적극적 전략($r = -.156, p < .01$), 분노표출 공격성은 정서표출 규칙($r = -.153,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또래관계 질의 하위영역인 무시는 친사회적 동기($r = .217, p < .01$), 전략수($r = .189, p < .01$), 회피억제 전략($r = .127, p < .05$), 대안추구 전략($r = .136, p < .05$)과, 갈등은 친사회적 정서조절 동기($r = .340, p < .01$), 전략수($r = .144, p < .05$), 대안추구 전략($r = .158, p < .05$)과, 일방주도는 친사회적 정서조절 동기($r = .168, p < .01$), 전략수($r = .142, p < .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긍정적 또래관계 질과 정서적 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격성의 하위 영역을 종속변수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D-W = 1.8 \sim 1.9$)을 통해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상관분석에서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정서표출규칙, 친사회적 정서조절 동기, 정서조절 전략수, 전략의 종류와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

〈표 5〉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R	R ²	Beta	F
언어적 공격성	1 정서표출 규칙	.154	.024	-.154	7.051**
	2 정서표출 규칙 아동의 성	.218	.047	-.168 -.155	7.199**
	3 아동의 성 적극적 전략	.251	.063	-.139 -.125	6.440**
대인 공격행동	1 아동의 성	.234	.055	-.234	16.727***
	2 아동의 성 정서표출 규칙	.274	.075	-.246 -.144	11.721***
	3 아동의 성 정서표출 규칙 적극적 전략	.301	.090	-.140 -.125	9.533***
분노표출 공격성	1 아동의 성	.174	.030	.174	9.038**
	2 아동의 성 정서표출 규칙	.226	.051	.161 -.140	7.782**

p*<.01 *p*<.001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적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표출 규칙’ 사용이고, 그 다음이 ‘아동의 성’, ‘적극적 전략’ 순이었다.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적극적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할수록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세 변인의 총 설명력은 6.3%였다.

대인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 ‘정서표출규칙’, ‘적극적 전략’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정서표출 규칙을 사용하고 적극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 공격행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9.0%이었다. 분노표출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의 성’이었고, 그 다음이 ‘정서표출규칙’의 순이었으며, 이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5.1%였다.

대물공격행동은 상관관계분석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관계 질의 하위 영역을 종속변수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D-W=1.8~1.9)을 통해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 변인들은 부정적 또래관계 질을 예측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적 또래관계 질의 하위 요인 인 무시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친사회적 동기’와 ‘전략 수’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0%였다.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또래관계에서 무시 받는 느낌이나 고립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수는 ‘친사회적 동기’였으며, 설명력은 13.0%였다. 아동은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할수록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을 더 적게

〈표 6〉 부정적 또래관계 질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R	R ²	Beta	F
무시	1 친사회적 동기	.217	.047	.217	13.864***
	2 전략 수	.245	.060	.153 .137	9.008***
갈등	1 친사회적 동기	.360	.130	.343	37.218***
	2 전략 수	.175	.031	.175	9.151***
일방주도	1 전략 수	.175	.031	.175	9.151***
	2 친사회적 동기	.210	.044	.131 .123	6.613**

p*<.01 *p*<.001

경험하였다. 일방 주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전략 수’, ‘친사회적 동기’의 순으로 설명력은 4.44%다.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정서 조절 시 친사회적 동기를 갖고 있는 아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도를 또래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 아동의 정서표출 규칙, 정서조절 동기, 정서조절 전략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의 하위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하위요소인 친사회적 동기와 적극적 전략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선·유안진, 1998; Zeman & Shipman,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서도, 여아는 남아보다 그 상황에 적절한 얼굴 표정과 언어적 발화를 조절하는 적극적 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아와 남아는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에서 서로 상이한 정서 사회화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Brody & Hall, 1993). 부모들은 여아에게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강조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부모자녀 관계와 또래관계에서 친밀감과 자기노출을 더 많이 보고(Buhrmester & Furman, 1987)한다. 따라서 여아

들은 대인관계의 발달과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공격성의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어적 공격성과 대인 공격행동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분노표출 공격성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고, 여아는 감정적인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어 아동의 성에 따라 공격성의 표현양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Musher-Eizenman, Boxer, Danner, Dubow, Goldstein & Heretick, 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아는 남아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암전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압력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Fagot(1984)는 매우 어린 영아의 교사조차 여아들이 언어적 공격, 물건 잡기, 울기, 치기와 밀기 등의 행동을 했을 때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고하였다. 여아의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 기대와 맞지 않으므로 두드러져 보이고, 학령기가 되면 여아들은 사회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을 보다 잘 인식하게 되어 밖으로 표현되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 연구 결과 여아의 분노표출 공격성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들도 여아의 간접적, 관계적 공격성향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격성문제는 아동의 성별과 하위영역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표출규칙 사용, 적극적 전략 및 아동의 성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다. 정서표출 규칙과 적극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언어적 공격성, 대인공격행동 및 분노표출 공격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공격적이라

고 평가된 아동은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지식을 덜 갖고 있었으며(Cole 등, 1994; Underwood 등, 1992), 분노 표현을 자주 나타낸다(Bohnert, Crnic, & Lim, 2003)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정확하게 정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또래와 관련된 공격적 상황의 발생을 줄이고, 아동들이 그들의 정서를 성공적으로 조절할 때 공격성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전략의 사용이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발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Crick & Dodge, 1994), 정서 조절 전략의 레파토리가 덜 발달되어 있다(Hubbard, 2001)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의 좋은 예측치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이 두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조절 능력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과 대인공격행동은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 표출 규칙과 적극적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노표출 공격성은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표출 규칙과 적극적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의 하위영역에서 성차가 발견된 연구문제 1의 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아들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영역으로 분노표출 공격성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여아들은 따돌리기, 소문퍼트리기와 같은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공격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아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영역에서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대물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정서조절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므로 사물에 대해 표출되는 공격성향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친사회적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수가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 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다.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관계에서 고립감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경향이 적었다. 아동이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실패하여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Bridges & Grolnick, 1994; Cole 등, 1994). 정서단서를 탐색하고 해석하여 조절하는 능력의 부족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낮추고 라포를 위협한다(Banninger & Huber, 1992). 따라서 정서조절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라포가 부족하게 되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어 무시, 고립감과 일방적 주도와 같은 부정적인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또래 평정을 예측(McDowell & Parke, 2000)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친사회적 동기가 부정적 또래관계 질의 모든 하위요인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그들의 정서표현으로 인해 누가 상처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도록 동기화될 때 정서행동을 조절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정서 조절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의 내적 동기는 겉으로 곧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친사회적 동기는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

래관계가 튼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정서조절을 하는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등과 같은 부정적 관계를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또래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인기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Underwood, 1997)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변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 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분석 결과 정서조절 능력의 설명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정서조절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 하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가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서조절 과정은 그들의 분노 표현에 대한 영향을 통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격성과 또래관계질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 외에도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선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 간의 중재변수를 탐색하고 중재를 통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둘째, 자기 보고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그들의 반응과 표현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과 실제 정서조절 행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찰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의 대상을 한 연령만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을 포함하여 관계의 발달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현상을 연구하는 횡단적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설계가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가 분노 조절과 같은 부적인 정서조절 능력만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부정적,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을 정서표출규칙, 정서조절 동기 및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공격성 및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정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프로그램 구성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초등학교 시기부터 왕따 문제 등 또래관계의 문제점과 공격적 행동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서조절 능력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아픔과 슬픔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서조절 증진 프로그램은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이지선·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임희수 ·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Arsenio, W., & Cooperman, S., Lover, A.(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2 accepta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38-448.
- Banninger-Huber, E.(1992). Prototypical affective microsequences in psychotherapeutic interaction. *Psychotherapy Research*, 2, 291-306.
- Barrett, K., & Campos, J.(1987). Perspective on emotional development II :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555-578). New York : Wiley.
- Bohnert, A. M., Crnic, K. A., & Lim, K. G.(2003). Emotional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79-97.
- Bordy, L., & Hall, J.(1993). Gender and emotion. Im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447-460). New York : Guilford Press.
- Bridges, L. J., & Grolnick, W. S.(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N. Eisenberg(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Social development*, 185-211. Thousand Oaks, CA, Sage.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25-459.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m L., & Bra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 :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ie, J. D., & Dodge, K. A.(1998). Multiple sources of date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ie, J. D., Terry, R., Lenox, K. F., Lochman, J. E., & Hyman, C.(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697-713.
- Coi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835-846.
- Cole, P. M.(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73-102.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rick, N., & Dog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earing K. F., Hubbard, J. A., Ramsden, S. R., Parker, E. H., Relyea, N., & Smithmyer, C. M.(2002). Children's Self-Reports About Anger Regulation : Direct and Indirect Link to Social Preference and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8(3), 308-336.
- Denham, S. A.(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 Guilford Press.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 Pathway

-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enham, S. A., & Holt, R. W.(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71-275.
- Ekman, P., & Friesen, W.(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Fagot, B. I.(1984). Teacher and peer reactions to boys' and girls' play styles. *Sex Roles*, 11, 694-702.
- Fuchs, D., & Thelen, M. H.(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14-1322.
- Furman, W., & Burh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05.
- Garder, J., Braafladt, N., & Zaman(1991). The regulation of sad affect :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In J. Garber & k.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er, P. W.(1996). The relations of emotional role taking, affective/moral attributions, and emotional display rule knowledge to low-income school-ag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36.
- Gneep, J., & Hess, D. L. R.(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ross, D., & Harris, P. L.(1998). False beliefs about emotion :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sleading emotional dis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475-488.
- Haapasalo, J., & Tremblay, R. E.(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 Harris, P. S.,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ubbard, J. A.(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 1426-1438.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McDowell, D, J., O'Neill, R., & Parke, R. D.(2000). Display rule application in a disappointing situ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2), 306-322.
- Musher-Eizenman, D. R., Boxer, P., Danner, S., Dubow, E. F., Goldstein, S. E., & Heretick, D. M. L. (2004).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the Relation of Environmental and Emotion Regulation Factors to Children's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0, 389-408.
- Orpines, P., & Frnakowski, R.(2001). The aggression scale :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arker, J., & Ascher, S. A.(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 accept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Gottman, J. M.(1989). Social and

-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95-1313, New York : Wiley.
- Robin, L. N., & Rutter, M.(1990).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ty Press.
- Saarni, C.(1997).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 Guilford Press.
- Saarni, C.(1979a).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 Saarni, C.(1979b). *When not to show what you think you feel"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lations between emotional experience and expressive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 Sarni, C.(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1989). Children's understanding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 social transactions. In C. Saarni & P.(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xpres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1994). Emotional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Underwood, M. K.(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 Underwood, M. K., Coie, J., & Herbsman, A.(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Zeman, J., & Garber, J.(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Zeman, J., Shipman, K.(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s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

2005년 4월 29일 투고 : 2005년 7월 4일 채택